

### 지철 스님의 도상(圖像)을 통해 본 상징과 은유

## 이간질한 뱀가는 '아비지옥행'

### 용두부월형(龍頭斧鉞形) 의식구 소견

처음 행자를 시작했을 때 어른 스님들께서 절 집안은 용사(龍蛇)가 혼재(混在, 섞여 산다)한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다. 그 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깨달은 훌륭한 스님들과 아직 깨치지 못한 스님들이 함께 살아간다는 뜻으로 이해했다.

동화사에서 박물관장으로 재직하면서 수장고와 전시실에 있는 많은 유물들을 자세히 관찰해보면 다른 곳에는 없는 귀중한 유물들이 많이 소장되어 있다. 이 용두부월형 의식구는 어느 탕화에 그 유례를 보이는데, 정성이 많이 들어간 목조각으로 용머리에 혀를 도끼처럼 만들어놓은 것이다.

입속에 혀 대신 도끼를 달고 있으니 무척 힘들 것 같은데 왜 도끼를 매달고 있을까? 아원비구자경문(阿圓比丘自警文)에 보면 그 뜻을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다.



용두부월형 의식구

린 승려는 언제나 선배를 깎듯이 대접했다.

그런데 어느 날 포교에 능숙한 스님 하나가 와서 함께 살게 되었다. 그 스님은 암자를 차지하기 위해 두 스님을 서로 이간질하기 시작했다. 선배스님에게는 후배스님이 뒤에서 욕한다고 하고, 후배스님에게는 선배스님이 못마땅하게 생각한다고 하고 해서 두 스님이 서로 불화를 일으켜 둘 다 암자를 떠났다.

이후 십몇년이 지나 다른 사찰에서 마주친 두 스님은 서로 참회하다가 포교사스님에게 속은 것을 알고 암자로 돌아와 포교사스님을 내쫓는다. 이 포교사스님은 그 후 수천생을 지옥에 있다고 귀신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이었다.

이 얼마나 무서운 과보인가! 이와 같은 입의 허물에 관한 이야기가 몇 가지지만 범구경에 물고기 까뻬라 이야기가 있다. 어느 바닷가 마을에서 어부가 그물을 치자 황금빛의 귀여운 물고기를 하나 잡았다. 그래서 어부는 그 물고기를 왕에게 갖다 바쳤다.

왕은 물고기가 왜 황금색을 띠고 있는지 궁금해서 부처님께 가서 여쭙자 부처님께서는 과거 전생에 스님이었던 황금고기의 전생을 이야기 해주었다. 그는 주변의 스님들을 욕하고 이간질하고 정법을 비난했던 과보로 황금고기로 태어났으며 입에서는 악취가 난다고 하셨다.

그리고 지금 죽어서도 아직 못다한 과보를 갚기 위해 아비지옥으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니 많은 대중들이 놀라서 경각심을 일으키는 것이었다.

이처럼 입에 도끼를 단 용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 담마빠다 돼지 귀신 이야기 입의 허물에 관한 과보 전례

구무다언(口無多言) 신불경동(身不輕動) 구시화문(口是禍門) 필가엄수(必加嚴守) 뜻을 풀이해 보자면 말을 많이 하지 말고 몸을 가벼이 하지 말라. 입은 화가 드나드는 문이니 반드시 엄정히 지켜야 한다는 정도의 의미가 된다.

담마빠다(범구경) 계승 281번에 보면 탐욕스러운 돼지 귀신 이야기가 나온다. 어느날 목련존자가 락카나 스님과 영축산을 내려 오다가 미소를 지었다. 그래서 락카나 스님이 이유를 묻자 부처님이 계신 곳에서 말하겠다고 약속한다.

목련존자는 탁발을 끝내고 부처님께 돌아와 자리에 앉은 후 그가 본 귀신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덩치는 엄청나게 크고, 몸은 인간인데 머리는 돼지였고 그 입에서 피리가 자라나고 있고, 피리끝에는 구더기가 자라고 있다. 그런 흉악한 귀신은 다른 곳에 없으리라 하고 미소 지었다 말한다.

그러자 제자들이 부처님께 그 귀신은 무슨 과보로 그 같은 형상을 하고 있는가 여쭙었다. 부처님께서는 가섭부처님 당시에 두 승려가 작은 마을의 한 암자에서 수행할 때 둘의 나이는 서로 한 살 밖에 차이가 안 났지만 한 살 어



동화사 선보박물관장

# “연꽃 감상하며 짐통 더위 식혀요”

### 전국 7~8월 연꽃 축제 한창

여름 연꽃이 아름다운 이유는 연꽃 때문이다.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맑고 찬연한 자태로 중생들의 근심걱정을 녹인다. 그래서 오락에 몰리지 않고 세속에 휩싸이지 않으며 웃음이 하늘로 향하며 세상을 환히 밝히는 연꽃은 여름 더위에 지친 시민들을 불러 모으기에 충분하다.

각 지역마다 연꽃축제가 한창이다. 서울 신촌 봉원사, 경기도 남양주 봉선사, 전북 김제 정운사 등 연꽃축제가 시민들의 발길을 재촉한다.

전북 김제 청운사에서 열리는 '제 11회 하소백련축제'는 순백의 연꽃과 산사의 고즈넉함을 느낄 수 있는 축제다. 7월 22일까지 열리는 이 축제는 '만남 그리고 어울림'을 주제로 관광객들을 맞는다. 이번 축제에서는 초중고 백일장, 오케스트라 공연, 관광재 노래자랑, 먹거리 마차, 시화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린다. (063)543-1248

2012 무안연꽃축제는 7월 26~29일 무안군 회산백련지에서 열린다. 개막행사, 야간 특별공연행사를 비롯해 폼바페스티벌 분청문화제 연유경연대회 등의 부대 행사가 펼쳐진다. 특히, '폼바 페스티벌'은 폼바 경연대회, 폼바왕 초청공연 등의 공연과 무형문화제 줄타기 시범, 폼바난타 체험 등이 진행된다. '분청 문화제'에서는 장작 가마 페스티벌과 분청 빚기 체험 등 풍성한 볼거리와 체험거리가 제공된다. 또



여름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연꽃 축제가 열려 대중들을 설레게 한다. 주최 측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대중들의 시선을 끈다. 사진은 부여 서동연꽃문화 축제 장면.

### 하소백련축제 오케스트라 공연

### 서동축제 사랑과 낭만 주제

### 봉원사 연꽃축제 영산재 시연

한 백련지의 물길을 헤치며 하얀 연꽃을 감상하는 신비의 연꽃길 보트탐사 등도 마련된다. (061)450-5473

서동공원 궁남지는 백제 서동왕자와 신라 선화공주의 국경을 초월한 애절한 사랑 이야기로도 유명하다. 이 역사의 현장에서 7월 26~29일까지 제10회 부여서동연꽃축

제가 열린다. 흥련, 백련, 황금련, 어리연 등 20여종 30만여송과 황수련, 백수련, 홍수련, 가시연, 열대 수련 등 50여종의 연꽃을 감상할 수 있다. (041)830-2921

태안연꽃축제는 8월27일까지 태안군 남면 청산수목원에서 열린다. 백련 흥련 노랑어리연 가시연 등 모두 200여종의 수련이 갖가지 모양과 색깔을 뽐내며 관광객들을 불러모으고 있다. 특히, 고흐 브릿지의 '만(卍)'자 모양 꽃길은 주변의 갖가지 연꽃들과 조화를 이룬다. (041)675-0656

신촌 봉원사는 '제10회 서울연꽃문화축제'를 8월 4~11일 경내 특설도랑에서 실시한다. 올해로 10년째를 맞은 봉원사 연

꽃축제는 산사음악회, 등불점화, 사진전, 차 시음회 등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관광객을 기다리고 있다.

8월 4일 입재식에서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시연을 시작으로 제4회 연꽃가요제, BBS-FM 특집공개방송 등이 전개된다. (02)392-3007

경기도 남양주 봉선사는 7월 28일부터 봉선사 연꽃 특설무대에서 연꽃축제를 펼친다. 부대행사로 는 >무료 연꽃차 시음회 >페이스페인팅 및 만다라그리기 > 불화 및 소품 전시 >대만 불교탑 홍보 및 찬불가 등의 행사가 펼쳐진다. (031)527-1951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 아미타불로 사후 세계를 보다

### 경주박물관 7월 22일까지 전시

우리에겐 가장 많이 알려진 사후세계는 지옥과 극락이다. 현생에서 악업을 많이 지으면 지옥에 떨어지고, 선업을 많이 쌓으면 고통 없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극락에 태어난다. 아미타부처가 주재하는 극락세계는 공덕을 쌓아 극락왕생하는 세계를 의미한다.

국립경주박물관(관장 이영훈)은 '아미타오존도'를 미술관 2층 금석문실 앞에서 7월 22일까지 특별공개한다. 아미타부처를 중심으로 석가의 제자인 아난과 가섭 존자, 그리고 지장보살과 관세음보살이 함께 묘사되어 있는 예배용 작품이다. 구도는 조선 후기에 유행했던 군침형 구도가 아닌 등장인물 모두 동등한 위치에서 정면을 향해 앉아있는 일자형의 독특한 구도다. 바탕은 삼베나 비단이 아닌 검은색 종이에 금선으로 대상물들을 묘사하여 마치 사경화를 감상하는 듯하다. 화면 전체에 사용된 유려한 금선묘(金線描)는 이 작품의 백미라 할 수 있다. 아울러 극락세계와 대비되는 지옥세계를 보조자료로 비교 전시해 불교의



국립경주박물관은 7월 22일까지 아미타오존도를 전시한다.

사후세계를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했다. 국립경주박물관은 “이 전시를 계기로 불교의 사후세계관을 이해하고, 서방극락세계의 주인인 아미타부처를 만나 선업을 쌓는 기회를 맞이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정혜숙 기자

## 전국 불교합창단 연수

###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서

'2012 전국불교합창단 임원연수'가 7월 10일에서 11일까지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에서 열렸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문화부장 진병)가 주최하고 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전국불교합창단연합회가 후원하는 이 행사는 206개 합창단 단장 및 임원 18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불교와 음악 간의 및 지역별 합창단 소통의 시간으로 마련됐다. 전국불교합창단은 “불교합창단의 전국적인 연대와 교류, 불교음악의 소양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마련된 행사다. 이를 통해 정보 교류는 물론 합창단원들의 단합을 도모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전했다. 정혜숙 기자

since 1973

# 2013년 불교달력 특별가격



### 연향이 머무는 곳(大/6절)

3,000부 이상 @

- 200부이상 @1,300원
- 규격 : 30.5cm × 31cm

1,100 원

### 반야심경(小/12절)

3,000부 이상 @

- 200부이상 @1,000원
- 규격 : 25.8cm × 26.5cm
- 사찰에서 선호하는 기본 사이즈입니다.

800 원

### 종이영가옷 / 예수재함 / 종이신발



B형-남 정가 1,300원 B형-여 정가 1,000원 동남 정가 1,000원 동녀 정가 1,000원



수자영가옷 정가 900원 영가천도다리니 정가 1,000원 금강경탑다리니 정가 250원



예수재함A (50개 1박스) 정가 50,000원 (50개 이상) 예수재함B (50개 1박스) 정가 60,000원 (50개 이상)



종이신발(남/여) 1켤레 100개이상 할인가 1,300원 정가 1,600원 한지접은 영가옷/위패 각1000개 @250원 (남자/여자/위패) 인쇄접은 영가옷/위패 각1000개 @250원 (남자/여자/위패)

동진기획 · 붓다쇼핑  
☎(051) 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 070-7425-0518 H.P 011-554-2988, 011-879-0889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드가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불교달력, 서적, 사경지, 연등, 염주, 향, 양초, 다포, 4.8용품, 백중용품]